

4.13 선거 RUN·RUN·RUN

김윤덕 예비후보 "이익공유제 법제화 절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 갑)는 "지역업체들은 경기침체와 불공정 경쟁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계약사에서나 등장하는 갑을관계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은 불공정 경쟁의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업의 문제는 재래상권 및 골목상권의 문제, 가맹점(대리점)문제, 소공인 문제, 갑질 문제 등 불공정 경쟁 관행은 심각할 뿐 아니라 광범위하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후보는 "상기업체차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건축 시 우선임차권 보장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및 거래관계 요구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의 상생모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최형재 예비후보 "제도로 튼튼해지는 상권 조성"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전주 을)는 21일 전주시 효자동 인근의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민들이 대형마트 SSM 등으로 바닥경제가 고사직전에 처해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대해 "지원과 제도로 튼튼해지는 상권을 만들겠다"라며 "개별시장에서 지역상권으로 지원정책을 전환하고, 자영업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바닥경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의 소중한 근간이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를 이겨 민생경제를 살리고 정권교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며 4.13총선에서 표로서 삼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영수 기자

김윤태 예비후보 "군산의 자존심 바로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윤태 예비후보(군산)는 21일 군산시청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신당한 유권자의 기대와 상처 입은 군산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 행정구역 재조정 및 구체적 장기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시설 확충 ▲공교육 및 지역대학에 대한 대폭 지원 ▲응급의료센터 구비 공공의료기관 신속 설립 ▲대형 아웃렛 입점 송전철탑 등 분쟁을 조정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탈당한 새내기 아당에게 군산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새만금 군산 땅이 타지역에 빼앗길 때 군산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전략공천과 관련 "그간 고생해 오신 우리 당의 새 예비후보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권교체와 아권통합을 이를 강안당을 위해 군산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고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새천년민주당 정책부의장을 맡으며 정치권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도서관장을 지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 후보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내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정책봉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영수 기자 · 군산=문정근 기자

박희승 예비후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반드시"

박희승 국회의원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후보 공천장을 받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주민회합에 앞장서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21일 출근길 인사에서 주민 어르신들 만났던 자리에서 "박희승의 행복한 입춘날 337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노후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개축 사업을 지원하고 냉난방 유류비를 현실화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여가 및 취미 등 평생교육을 확대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 및 경로당 건강관리 확대해 행복한 100세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4선 겨냥 불안출신' 더민주 김춘진 vs '첫 도전 김제출신' 국민의당 김중희

정책전 · 지역전 대결 구도 양상 예측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①김제부안

김제부안 지역은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당초 고창·부안과 김제·원주의 선거구가 제20대 선거에서 김제·부안 등으로 재획정에 해당 지역의 유력자들간 빅매치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후 전북으로 향한 더민주 컷오프의 칼날이 김춘진 예비후보를 4선의 길목에 앉혀놓은 가운데 지난 20일 국민의당이 경선을 통해 김제의 '안방바님' 격인 김중희 예비후보를 경쟁자로 올려 놓음으로써 두 예비후보 간의 '로컬 더비(Load derby)'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 전북도 생활체육회 이사를 지낸 새누리당 김효성 예비후보와 정의당 초대 대표를 지낸 진보진영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강상구 예비후보의 '반사이익'에 의한 선전도 기대된다.

먼저 현역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더민주 김 예비후보는 내리 3선을 지내는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에 거의 매해 그 이름을 올렸고 의정활동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일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창이 아닌 고창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새만금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두차례의 도당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며 계파를 떠나 지역현안만을 보고 12년 의정생활을 해온 정치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현 상황이 녹록치않은 않다.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됨에 따라 고창이 빠져나가고 김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부안출신인 김 예비후보에게 지역적으로 불리한 선거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당 김 예비후보

김춘진 의원·김중희 후보 부안·김제서 각각 높은 지지

강상구, 진보세력에 큰 인기 상당한 바람 일으킬 가능성

김효성, 각계각층과 인맥 형성

는 원광대 한의학을 강의하고 60여년 전통의 화성강당에서 무료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김제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스킨십을 유지해온 김제의 '안방바님'이다. 특히 그는 제19대 총선에서 최규성 의원과 막판까지 각축을 벌인 경쟁력 있는 도전자로서 20일 발표한 국민의당 후보 경선에서 2위인 국민회 전 김제시장을 24.9% 포인트 차로 누르고 본선행 열차에 탑승했다. 호시기를 사이에서는 김제의 인구(8만13000여명)와 부안군의 인구(5만7000여명) 차가 3만여명 정도 난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전략을 짤다면

지역의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신인물설'도 나돌고 있다. 다만 그는 국민의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회·내유인·송강 등 타 후보들과의 '불공정 경선' 시비로 불거진 잡음을 해결하고 지지세를 결집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교적 늦게 선거구도에 뛰어든 새누리당 김효성 예비후보는 전 전북도 생활체육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지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형성한 인물이다. 그는 김제·부안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내 새만금 사업의 최대 효용을 내기 위해 힘있는 여당 의원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 강상구 예비후보는 김제부안지역의 진보진영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천에 따른 반사적이익을 통해 상당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가의 의견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양승의 대결'은 예측하기 매우 힘든 구도이다"면서 "이는 김제·부안 지역이 '정책전'의 양상과 '지역전'의 양상을 동시에 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이거 놔 놓으라고" 국민의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김영균 후보의 아버지인 김봉호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장에서 퇴장 당하고 있다. 김봉호 전 부의장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윤영일 후보가 공천되는데 항의하다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성 의원 불출마... 당 잔류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부안)이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권교체에 힘쓰겠다. 앞으로 당이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설에 관해서는 "중앙당 심사 결과를 받아 들이는 것이 옳다고 봤다. 무소속 출마는 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경선 기회도 없지는 중앙당 결정은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심사 기준인 도덕성 등과는 별개로 탈락 시킨 것은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더민주 2차 공천배제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김춘진 의원과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굳이 경선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신광영 기자

원주진우장 등 3곳 과열혼탁지역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주,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 등 3개 선거구를 20대 총선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 선전행위, 조직적인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법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또 중대선거법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에 전주시 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월 3일에는 전주시, 남원시임실순창군, 김제시부안군을 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유승민 공천 또 보류

새누리당 최고위가 21일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 의원 문제에 대해 "그 부분은 보류된 단추처럼 지역 5개 지역 문제와 함께 내일 같이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성주 기자

'자기사람 혹은 금수저' 청년비례 공천... 이젠 김종인 '셀프공천'에 당무 거부까지

"이제 할짓인가?"... 더민주, 다시 내홍속으로

김 대표, 비대위 수정 시도 반발에 당내 원로·중진 등 항의

당내 상위권 의원들 공천배제, 그리고 청년비례 논란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셀프 공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특히 김 대표가 당내 반발에 맞서 당무를 거부하자 당의 중진들과 원로 당원들까지 나서서 "김종인 사퇴"를 외치며 지도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21일 더민주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는 A, B, C 그룹으로 나눈 '간막이 투표'부터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 2인 셀프공천까지 전반적인 비례대표 선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비대위원들의 비례대표 선출안 수정 시도에 대해 반발하며 당무를 거부했다.

회의가 한 시간여쯤 지났을 때 중앙위원

인 선진규 고문이 당대표실을 찾았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과 현 사태에 대한 김 대표의 사과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손에 든 채였다.

그는 "비례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60년동안 키워놓은 당에 이렇게 인물이 없느냐 비례대표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후 실무위원회 소속 원로 10여명도 피켓을 들고 국회를 찾으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들은 '천만 노인원자 무시하는 비례대표는 무효'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김 대표의 비례대표 2인 배치, 노인대표성과 지역인배를 고려하지 않은 비례대표 명부 등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했다.

특히 원로들은 비대위원들이 회의중인 당 대표실을 거칠게 두드려 "문 열어! 민주당 잘 굴러간다!", "김종인을 언제 봤다

고 여당했다가 야당했다가 한 사람에게(비례를 주느냐)",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국회 방청에서 이들을 제지하고 끌어내자 한 여성 당원은 "대표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느냐"며 "대표따라 나가라고 하라"고 울부짖으며 주저앉기도 했다.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이들과 면담하며 달랜 후에야 사태는 진정될 수 있었다. 이들의 소동으로 비대위원들도 비례대표 선출 수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마쳐야 했다.

박병석·원혜영·유인태·이석현·정세균·추미애 의원 등 당 중진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당헌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논란으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이뤄지는 중앙위원회도 이날 저녁 8시로 늦춰졌다.

/이성주 기자